



◇김영태교수 ◇오형근교수 ◇권기중교수 ◇이은봉교수 ◇해주스님 ◇김용표교수 ◇이은봉교수 ◇김용표교수 ◇이중철교수

불교학 교수들 “방학이 더 바쁘다”

김영태·오형근·은정희·이중철 교수

해주스님·권기중·김용표·이은봉 교수

경전 번역·연구서 등 집필 ‘몰두’ 국내외 불교세미나 논문 준비

“일 겨를이 없다” 전국의 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간 한 달 남짓, 교수들은 학기중보다 더 바쁜 연구일정으로 학문과 씨름하고 있다.

강의로 인해 학기중에는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던 저술활동과 외부 강연, 원고청탁, 논문작성에서 다음학기 강의를 위한 연구까지 눈코 뜰새가 없다. 올 여름방학 불교학 교수들의 근황은 어떠한가.

돈창에술아카데미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차 한 달간 중국을 방문하고 최근 귀국한 동국대 해주스님(불교학부)은 9월5~6일 일본 교토

에서 열리는 인도학·불교학회 세미나를 위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저자의 시비(是非)에 대한 시비’를 주제로 연구 중인 해주스님은 “지난해 ‘화엄일승법계도’의 저자 의상(義相)스님을 두고 있었던 시비는 정과 관련,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시 밝혀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주스님은 11월21~24일 열리는 미국 종교학회(AAR) 정기 발표회 일회학 패널 발표자로 선정돼 논문을 준비 중이다. 동국대 권기중 교수(불교학부)는 ‘국가권력과 종교’를 주제로 8월18~20일 열

리는 역사학회 세미나에서 불교분과 발표자로 나서기 위해 ‘중국불교에서의 국가권력과 불교’를 주제로 논문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구사론) (육조단경) 등 경전 문독과 대 은정희 교수(윤리교육)는 올 연말까지 (금강삼매경론)과 (이장의)의 주석서를 펴내기 위해 번역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동국대 김용표 교수(불교학부)는 8월25~31일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불교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 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국제불교세미나는 동

아시아 17개국 불교학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의 불교도의 길’을 주제로 불교 문화·철학·예술·생활 등 4개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대 포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김용표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문화사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위치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국제원효학회 한국지부 간사이기도 한 김용표 교수는 해주스님과 함께 미국 종교학회 정기발표회 원효학 발표자로 내정되어 있어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의 반야경 해석학’을 준비하고 있다.

덕성여대 이은봉 교수(철학과)는 10월 열리는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추계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 ‘한국종교와 다종교사회’에서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화합을 통해 사회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각 종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해 재언할 계획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중철 교수(한국학대학원)는 동경대 박사학위 논문 ‘세친(世親)사상의 연구-석가론을 중심으로’를 일본 산키보(山崎房) 출판사에서 펴내기 위해 작업 중.

지난해 정년퇴임했으나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김영태·오형근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도 방학동안 불학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김영태 교수는 이차돈 성사의 사상을 책으로 묶고 있으며, 오형근 교수는 <반야심경> 해설서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원운스님(역경원장)의 <고회논문집>에 수록될 ‘원측법사의 반야심경찬(讚) 연구’ 등을 집필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In Memory of our beloved Teacher Venerable Ajahn Chah

Doctors prescribe medicine to eliminate disease from the body.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re prescribed to cure disease of the mind, to bring back its natural healthy state. So Buddha can be considered to be a doctor who prescribes cures for the ills of the mind. He was in fact the greatest doctor in the world.

What is this disease of the mind? Wrong Understanding which lets Greed, Hatred and Delusion take over the mind.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ease we have to apply Morality, Concentration and Wisd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잔타스님

슈메도 등 서구제자들 사이트 개설 행장·수행어록·바풍사원 등 볼 기회

유럽 불자들에게 가장 알려진 남방불교 선지식은 누구일까? 인터넷 홈페이지 ‘아잔타(http://ksc15.th.com)’를 방문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잔 슈메도 등 그의 서구 제자들이 최근 개설한 이 사이트는 수행장 △바풍사원 △수행어록 △전자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잔차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갈무리할 수 있다.

태국불교의 등불로 불리는 아잔차스님은 1917년 태국 북쪽 라오스와 국경지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0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아잔차스님은 태국의 숲속에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며 고행주의의 전통에 따른 명상 수련을 지도 받았다. 이때 금세기 태국과 라오스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선지식 중 한 분인 아찬 문과 짧은 기간을 같이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해 동안의 공부와 수행을 거친 다음 아잔차스님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속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그가 말년을 보낸 바풍사원은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스승들과 신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오고 함께 지내면서 아잔차스님의 주변에는 대규모 승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잔차스님은 매일 제자들에게 “모두 유·무정물들은 자연 속에서 저마다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고 한다. 바풍사원에 들어가는 길가에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쓴 팻말이 보인다. 이 사원에서는 지금도 하루 두번의 독송과 스님의 가르침을 되

짚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명상’을 최고의 수행으로 여기며 스님이 강조했던 ‘자연속의 나’를 명상 수행으로 찾고 있다.

‘수행 및 어록’에서는 스님을 가리는 제자들의 기억이 한 토막씩 나열되어 있는데, 아잔 슈메도스님은 “스님은 존재로 마음의 어떤 특별한 상태, 즉 삼개의 깨달음의 상태를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스님은 어떤 문제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질문자에게 모든 집착을 놓아 버렸는지, (苦)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는지 되물었다. 대부분 ‘아직 멀었다’고 답하면서 그들에게 오로지 마음 관찰의 수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스님의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1992년 바풍사원에는 아잔 슈메도스님등 유럽인 제자 수십명이 모여 들었다. 아잔차스님의 열반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아잔차스님과 이들 제자들의 인연은 1960년 맺어졌다. 당시 스님은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유럽지역 순방 법회를 열고, 대부분 이때 스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스님의 법문집에 외국인과의 일화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스님이 법문하고 생활하는 △사건 14장을 선명한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고, 국내에서 출판된 <마음의 양식> 뿐만 아니라 <보디니아> <살아있는 불법> <자유와 맛> 등의 △법문집이 있다. 이들 자료는 각각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다운로드이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유신시대 한국종교문화 정치·사회적 틀에 구속”

윤승용씨 주장 ‘격동의 시대’로 불리는 한국 근대사의 한 가운데서 종교는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동아시아에서의 민족과 종교’를 주제로 17~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한·일 종교연구자교류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와 현대종교·유신시대(1974~1979)를 중심으로’를 발표 예정인 윤승용씨(한국종교연구회 연구위원)는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냉전구조가 우리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해 온 가운데 한국의 종교문화는 문화적 힘보다는 정치·사회적 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유신시대의 민족주의와 종교와의 관계를 고찰한 윤씨는 “유신시대에는 체제의 정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민족주의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진보적인 민중문화를 활용하는 민주민족주의, 민중민족주의가 대립과 갈등을 일으킨 때”라고 분석하며 “현대종교는 이같은 민족주의에 대해 때로는 종교적 이해관계로, 때로는 분단국가의 이해관계 등 특정한 지향성을 가진 민족주의를 선택해 왔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태방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종교는 민족주의를 담이내는 기제가 되거나, 또는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중요 기제로 등장하였다”며 “분단체제에서 야기되는 병진적 신앙의식이 종교계를 지배, 한국종교의 민족주의는 서구종교가 지향해 왔던 정치적 민족주의만 사회적으로 확장되었을 뿐 전통종교가 가진 민족주의의 자원도, 자생종교가 가진 민족지상주의도 모두 현실적인 힘으로 발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조선시대 팔상도의 전개 석보상절의 판화가 모본”

이영종씨 주장 우리나라 팔상도(八相圖)의 도상적(圖像的) 연원을 인도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시대 팔상도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영종씨(서울대 박사과정)는 최근 나온 <미술사학연구> 제215집에서 ‘조선시대 팔상도 도상의 연원과 전개’를 통해 “불전팔상(佛傳八相)이라는 관념은 인도불교사에서 굽타시대 이후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으나 우

리나라 팔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팔상도는 중국 송초(宋初) 도상(道敎)이 주해한 <석가여래성도기주(釋迦如來成道記註)에 근거, 자수(字數)를 네 자로 맞춰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와 같이 통일된 명칭을 가진 팔상관이 서술된 최초의 문헌은 <석보상절(1447)>로, 여기에 실려 있는 팔상 판화의 도상들이 이후 우리나라 팔상도의 중심주제로 일관되게 전승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 전기의 팔상도는 <석보상절> 판화의 중심주제를 중앙에 배치, 주변에 다양한 불전(佛傳)을 도해한 형식으로 확립됐으며, 후기에는 주변에 <석씨원류응화사적(釋氏源流應化事蹟)이라는 명대(明代) 불전도본(佛傳圖本)에서 채용한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학술단신

‘보조사상’ 11집 나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지난해 주최한 세미나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상과 역사적 위치’의 주제발표 논문과 원제발표회 논문을 수록한 <보조사상> 제11집을 최근 펴냈다.

△의천의 화엄사상과 천태사상 등 의천의 불교사상 체계에서 불교계 개편문제에 이르는 대각국사 의천의 사상이 총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02)733-5315

대승불교 특강
대승불교연구원(원장 오형

美 워싱턴 켈일워스 수상공원

‘연못 가득 노란 연꽃’

노란 연꽃이 피어있는 켈일워스 수상공원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지는 “매주 토요일 공원 연못에 가득 피어있는 연꽃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켈일워스 수상공원은 그동안 일주일당 겨우 1백여명이 다녀가는 정도였으나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7월초부터 한주간 평균 1천여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 것. 그동안 공원 연못에서 연꽃을 기꾸어 온 아드리안 히긴스(조경사·42)는 “아마도 연꽃이 고대 인도인들의 이국적 사상을 일깨워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경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주머니속 대경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번역 66 변형 241쪽 /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숏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경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66 변형 178쪽 /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공덕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심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경경 502

확실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66 변형 182쪽 /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실명’,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